

종합·해설

대선 프리즘

朴 ‘여성 대통령론’ 득실은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가 ‘준비된 여성 대통령론’을 내세우며 여성(女心) 공약에 나서고 있다. 이는 ‘여성 대통령론’이 가결되면 될수록 자신에게 유리하고 표의 확장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 때문이다.

그는 지난 20일 여교생 성폭력 문제를 다룬 영화 관람에 앞서 “(성폭력)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주는 범죄다. 사형까지 포함해서 강력해 그런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간 여성·아동 성폭행 사건에 원론적인 입장을 보여왔던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그는 아동·여성 성폭력과 관련, 주로 제도개선을 통해 피해예방을 하자는 입장이었다.

앞서 지난 14일엔 ▲셋째 아이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저소득가정 12개월 미만 아이의 조제분유와 기저귀 제공 ▲정당 여성 공천 심사위원 40% 이상 의무화 ▲가정 내 아이 돌봄이 파견사업 확대 ▲여성고수·교강 쿼터제 등 여성·

여성 정책 잇따라 발표
지지를 4~7% 높아져
대선까지 밀고 가기로
아권 공세 노출 고민도

가족 정책을 발표했다.

그의 이 같은 행보는 ‘여성 대통령론’에 힘을 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박 캠프는 ‘여성 대통령론’을 대선까지 밀고 나갈 계획이다.

박 후보가 최근 ‘여성 대통령론’을 띄우고 있는 상황에서 이날 여성정책을 종합발표하면서 당에선 여성 유권자 표 결집이 일어나고 있다고 자체 분석하고 있다.

연령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이전보다 여성층 지지율이 남성보다 4~7% 정도 높아졌다는 게 새누리당 측의 분석이다. 박 후보는 앞으로 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불량식품 등 여성이나

자녀를 둔 주부들의 관심이 큰 공약을 내놓을 예정이다.

캠프 관계자는 “우리 사회에서 가정 보호를 최우선시하겠다는 의지가 실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여성 표역시 세 대간 대결로 판가를 날 것이라 관측도 있다. 젊은 여성층에서의 박 후보 지지도가 여전히 낮아 여성 표 확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여성 대통령론을 내세울수록 아권의 공세에 노출된다는 점도 고민스러운 대목이다.

강금실 전 법무장관은 지난 17일 “이번 대선은 남성과 여성의 대결구도가 아니다”라며 “여성 대통령론”을 반박하며 “경선 때에도 (여성정책 등에 대한) 언급이 없던 새누리당이 표를 위해 여성을 동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박 후보의 핵심 지지층인 보수 진영의 호응도도 지켜볼 부분이다.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해 부정적인 극단적인 보수층 일각의 기류도 의식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문·안 TV 토론에 올인
박, 교육정책 공약 발표

대선후보들 행보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는 21일 교육정책을 발표하며 정책행보를 이어갔다. 아권 단일후보경쟁을 벌이고 있는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이날 밤 11시 후보 단일화 TV토론을 했다.

박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교육정상화추진 특별법’을 제정,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시험을 금지하고 교과 과정을 넘

어서는 입시출제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교육공약 5대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박 후보는 또 방과 후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초등학교생들을 위해 ‘온종일 학교’를 운영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그의 교육공약에는 자신의 진로를 찾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자유학기제’를 중학생 때부터 도입하는 방안과 중·고교생이 ‘1인 1스포츠클럽’을 운영해 학교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방안도 포함됐다.

박 후보는 이날 또 시내 고속버스

터미널 내 센트럴시터에서 열린 제49주년 ‘경우의 날’ 기념식 축사를 통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분명한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차기 정부에서 경찰수사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수사권 분점을 통한 합리적 배분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경찰의 수사권이 확립되고 수사역량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해서 경찰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문 후보와 무소속 안 후보

는 이날 후보단일화 TV토론을 당초 예정보다 한 시간 늦은 오후 11시부터 지상파 3사의 공동 생중계 속에 100분간 진행했다. 때문에 문 후보는 이날 모든 일정을 비운 채 TV토론 준비에 ‘올인’했고 안 후보도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 외에는 다른 일정을 잡지 않고 토론에 대비했다.

대선 안 후보 캠프에서는 성평등정책과 정보통신(IT)정책을 각각 발표했다. 안 후보 캠프 성평등정책포럼은 이날 공평동 캠프에서 회견을 갖고 공공부문 채용시 일정 비율 이상 여성 할당과 성폭력 신고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성평등 정책을 발표했다. 우선, 성차별금지법(가칭)을 제정하고 국무총리실 소속 성 주류화 위원회를 설치해 정부의 성평등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안 후보 캠프의 IT·인터넷 포럼은 이날 오후 휴대전화 요금 자율화와 인터넷 자율화 등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IT) 정책을 발표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교육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박 후보는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시험을 금지해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등 교육공약 5대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언론인 선거운동
금지는 위헌”

‘나꼼수’ 위헌 법률 심판 신청

4·11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여준(44) 판지일보 총수와 주진우(39) 시사인 기자가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법률 심판을 신청, 주먹을 끌고 있다.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 60조 1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신청으로,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것이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은 “해당 선거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신청서를 이날 말까지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패널인 이들은 총선 직전인 지난 4월 1일부터 10일까지 8차례에 걸쳐 민주통합당 정동영 후보와 김경원 후보 등을 대종 앞에서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대규모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들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재판받고 싶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바 있으며 법원이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하면 진행 중이던 소송은 현재 판권이 나올 때까지 중단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를 위해 박근혜로 가야 한다는 뜻을 표현하겠다”면서 “이 전 대표가 후보 등록 이후 적절한 타이밍에 도와줄 것으로 본다”고 공약했다.

이전개 후보는 오는 22일 새누리당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 일정이 잡혀있다고 밝힌 상태다. 새누리당은 이 후보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후보직을 사퇴하고 박 후보 지지를 선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이 후보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다”라며 “참모 중에 박 후보 지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회의 등을 통해 결정하려고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이회창·이건개, 박 지지 할듯

이건개 후보 사퇴 가능성

이회창 전 자유선진당 대표와 무소속 이진건 대선 후보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지지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1일 박 후보 측과 이 전 대표 측에 따르면 현재 박 후보 측이 이 전 대표에게 구애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후보가 전날 경제지와의 합동 인터뷰에서 러닝메이트로 총리 후보자를 내세우는 방안, 이 전 대표의 영입 논의 등에 대해 “당에서 많이 얘기들이 나오는데 종합해서 잘 참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대위의 한 핵심 관계자는 “이 전 대표의 선거 전에도 ‘이번에는 나라

를 위해 박근혜로 가야 한다는 뜻을 표현하겠다”면서 “이 전 대표가 후보 등록 이후 적절한 타이밍에 도와줄 것으로 본다”고 공약했다.

이전개 후보는 오는 22일 새누리당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 일정이 잡혀있다고 밝힌 상태다. 새누리당은 이 후보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후보직을 사퇴하고 박 후보 지지를 선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이 후보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다”라며 “참모 중에 박 후보 지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회의 등을 통해 결정하려고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김무성 “盧, 부정 감추려 자살”
문측 “용납 못할 패륜적 망언”

새누리당 김무성 총괄선대본부장이 21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신의 부정을 감추기 위해 자살했다는 취지의 언급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 본부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농어업경쟁력강화혁신특별위원회 발대식에 참석, 격려사를 통해 “권력형 부정부패의 사슬이 아직까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이 구속되고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부정을 그걸 감추기 위해 자살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김영삼 전 대통령을 모시고 집권해 청와대에 가보니 거짓말 안 보태고 이 바의 한 40% 정도 되는 은행지점보다 더 큰 스테인리스 금고가 있었다”면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현금을 쌓아놓으려고 금고

를 만든 것이다. 김 전 대통령이 그걸 보고 나쁜놈·도둑놈이라며 당장 처리하라고 해서 8 트럭 5대 분이 실려 나갔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이명박 후보를 압도적 표차로 당선시켰는데 국가 공권력 집행을 제대로 못했다”며 “정권 초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박은 대못을 빼내야 할 시기에 ‘병든 소 수입해 국민을 다 미치게 만든다’는 말도 안 되는 말에 (국정) 마비 사태가 왔다”고 주장했다.

김 본부장의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한 발언에 대해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 측은 “용납하기 어려운 패륜적 망언”이라고 비판했다.

문 후보 측 진성준 대변인은 이날 영등포 당사 브리핑에서 “노 전 대통령과 관련해 이인제 의원은 이은 두

번재 망언으로 (이는) 이번 대선을 부정적 대 노무현의 대결구도로 끌고 가려는 정략적 타산에서 나온 발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현 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본부장의 발언에 대해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자신들에 의해 죽음을 당한 전직 대통령을 정략적인 목적으로 부관참시하는 새누리당의 행태는 패륜적 범죄”라고 지적했다.

진 대변인은 “광우병 촛불시위를 공권력으로 확 제압했어야죠”라는 김 본부장의 발언에 대해서도 “부마항쟁과 관련해 ‘갑보다야에선 300만 명이나 희생시켰는데 100~200만 희생시키는 게 대수냐’ 했던 차치철을 떠올리게 하는 망언”이라고 비난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대출금리:연5.5%~대출금액:1,000만원~8,000만원

공무원 대출

과다대출·캐피탈·저축은행·대부업체의고금리를 이용중인 공무원을 위한 연5.5% 대출

이런분은 꼭!! 연락주세요

- 과다대출로 추가대출이 어려운 분
- 고금리를 저금리로 전환하실 분
- 카드론 현금서비스를 많이 사용하는 분

현재의 부채상황을 리모델링 해 드립니다

예시: 행정6급이고 연봉이 5,000만원인 공무원의 경우입니다.

리모델링전		리모델링후	
부채현황		부채현황	
농협중앙회	70,000,000원	농협중앙회	100,000,000원
씨티은행	15,000,000원	국민은행	40,000,000원
지적농협	10,000,000원	씨티은행	50,000,000원
상생카드론	9,000,000원	총부채	180,450,000원
더블유저축	8,000,000원	1년이자비용	36,035,000원
SC저축은행	37,500,000원		
솔로몬 저축	15,000,000원		
대부업체	20,000,000원		
		1년이자비용	6,750,000원
		농협중앙회	100,000,000원
		국민은행	3,200,000원
		씨티은행	4,500,000원
		총부채	190,050,000원
		1년이자비용	14,450,000원

연5~15% 연체 추가비용 없음

하나로 채무통합 011-705-2230

등록번호: 2011-3430067-25-5-00028 주소: 대구 서구 평리로 215, 302호

성공을 부르는 **말하기** 기술 <http://www.kleader.kr>

스피치 리더십 과정

제23기 수강생 모집!!

제3기/나도 명강사가 될 수 있다. **말 잘하게** 하는 특별한 방법

어머니 스피치 교실

제 3기 수강생 모집

면접능력향상과정

■대상: 취업준비생, 직업훈련생, 대학생

사회초년생, 면접준비 없이 나간다는 것은 위험천만 합니다. 본원에서는 학생들의 학과별 다양한 대응분야를 기회·실제하여 다양한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는 **활동적 리더십** 배양을 목적으로 **면접능력향상과정** 등 **취업캠프**를 맞춤 지원합니다.

초·중·고 대학생 등을 위한 맞춤형 스피치교육

스피치교육은 단순히 스피치만 잘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피치를 잘하게 됨으로써 **교우관계에서 리더가 되고 자신감을 갖게 됨으로써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어 성적도 올라가게 되며 성격이 적극적으로 변하는 등 인생이 변하게 됩니다.** 스피치 트레이닝을 빨리 할수록 효과가 월등해 집니다.

교육지사·가맹점 모집 중
☎062)222-2255 / HP. 010-9441-7000

한국스피치리더십교육원

부동산 경매, 유동화 자산매각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2층] (법원 앞에서 70m 변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지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최고수익률 / 세금계산서발급(양도세감면) / 신속한명도 / 정확한권리분석 / 최상의대출

경매에 관한 모든 상담 062-236-3400

추천 물건 상담전화 010-5879-0005

<p>☞ 총량로 [5층백화점] ☞</p> <p>대2708㎡, 건18171㎡</p> <p>감정가 310억 최저가 130억</p>	<p>☞ 숙박시설 [치평동] ☞</p> <p>대704㎡, 건2042㎡</p> <p>감정가 32억 최저가 22억</p>
<p>☞ 소매동 [독서실] ☞</p> <p>대561㎡, 건1439㎡</p> <p>감정가 12억4천</p> <p>최저가 6억9천</p>	<p>☞ 신안남해 [호텔,판매시설] ☞</p> <p>대4706㎡, 건1123㎡</p> <p>감정가 18억</p> <p>최저가 10억</p>
<p>☞ 전북김제 [물류센터] ☞</p> <p>대8076m2, 건5004m2</p> <p>감정가 25억 최저가 8억</p>	<p>☞ 전주시덕진구[유류주점] ☞</p> <p>대665㎡, 건988㎡</p> <p>감정가 11억4천 최저가 5억8천</p>
<p>☞ 화순이양 [공장] ☞</p> <p>대6536㎡, 건2056㎡</p> <p>감정가 9억8천 최저가 2억8천</p>	<p>☞ 보성읍 [상가] ☞</p> <p>대685㎡, 건763㎡</p> <p>감정가 7억2천 최저가 1억5천</p>
<p>☞ 총량로 [근린주택] ☞</p> <p>대215㎡, 건306㎡</p> <p>감정가 4억6천 최저가 2억</p>	<p>☞ 목포대양동 [수양관] ☞</p> <p>대1786㎡, 건408㎡</p> <p>감정가 4억8천 최저가 1억7천</p>

임대 및 매매
김수희 공인중개사 010-8567-4600

추천 물건 상담전화 010-8227-7759

<p>☞ 북구 대촌동[2층공장] ☞</p> <p>대지 1506평 > 건물 1031평</p> <p>감정가 39억8천</p> <p>대매가 25억5천</p>	<p>☞ 화정동 [예산점] ☞</p> <p>대지 330평 > 건물 1357평</p> <p>감정가 41억5천</p> <p>대매가 20억(협의후결정)</p>
<p>☞ 군산 [바이오에너지공장] ☞</p> <p>대지 3025평 > 건물597평</p> <p>감정가 99억4천</p> <p>대매가 38억 (협의후결정)</p>	<p>☞ 영암 [노인병원] ☞</p> <p>대지 2878평 > 건물 2209평</p> <p>감정가 95억2천</p> <p>대매가 27억3천</p>
<p>목포 상동[숙박시설]</p> <p>대170평 건544평</p> <p>감정가18억6천 최저가13억1천</p>	<p>화순 화순읍[주유소]</p> <p>대1095평 건105평</p> <p>감정가120억 최저가 14억1천</p>
<p>무안 망운[숙박시설]</p> <p>대257평 건346평</p> <p>감정가11억 최저가6억2천</p>	<p>구례 용방[공정]</p> <p>대1295평 건363평</p> <p>감정가13억 최저가9억2천</p>
<p>화순 도곡(무인텔)</p> <p>대1904m2.2628m2</p> <p>감정가 26억7천 최저가 18억7천</p>	<p>광산구 신창동[대지]</p> <p>대150평</p> <p>감정가8억7천 최저가6억1천</p>
<p>나주중앙동[근린상가]</p> <p>대330평 건480평</p> <p>감정가23억1천 최저가16억2천</p>	<p>서구 치평동[숙박시설]</p> <p>대213평 건167평</p> <p>감정가32억 최저가22억4천</p>
<p>광산구 월계동[상가]</p> <p>대135평 건81평</p> <p>감정가6억3천 최저가3억6천</p>	<p>광산구 용동[공정]</p> <p>대400평 건215평</p> <p>감정가4억2천 최저가3억3천</p>

*** 함께할 운영자 및 연회원을 모집합니다**

▶ 12월중순open 예정인 (주)수향기맑은터에서 업계최고의 대우로 유능하고 성실한 인재를 모집한다.

• 찬모(여)2명, 설갯이(여)1명, 출서방6명, 매니저(남, 여)2명, 매점(여)1명, 경리(여)1명, 영업부(남, 여)2명

• 복리후생 : 4대보험, 퇴직금, 월4회휴무, 급여 : 업계최고 대우 및 성과상여금

• 근무처 : 나주시남평읍 풍림리 171번지 서류점수시 면접, 상담가능(시간외) H.010-7570-7525